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관한 연구

– 마린 세르(Marine Serre)를 중심으로 –

엄유민 · 오경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박사수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패션전공 교수[†]

A Study of Upcycling Fashion Design from a Sustainable Perspective

- Focusing on Marine Serre -

Yu Min Eum · Kyung Wha Oh^{*†}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College of Art, Chung-Ang University[†]

(2023. 8. 8 접수; 2023. 9. 25 수정; 2023. 11. 3 채택)

Abstract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by Marine Serre were analysed to understand upcycling fashion design, which can be an important way to follow sustainability values in the fashion industry, and to provide solutions for moving towards sustainable fashion. In order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ing fashion design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the values of sustainable desig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upcycling design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Marine Serre's seasonal collections from the 2018 F/W season to the recent 2022 F/W season.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alue of sustainable fashion design could be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values. Second, Marine Serre's upcycling fashion design was driven by the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upcycling fashion design, such as environmentality, originality, variability, economy, handicraft, time, and availability. Third, Marine Serre's upcycling fashion design contained all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ustainability values.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Marine Serre's upcycling fashion design can be said to be an upcycling fashion design with convergent values that encompasses all of the sustainability core values of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Key Words: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Sustainable Fashion Design(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Upcycling Fashion Design(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Marine Serre(마린 세르)

[†] Corresponding author ; Kyung Wha Oh
Tel. +82-31-670-4805
E-mail : kwhaoh@ca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산업 체계의 본질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 전 세계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패션 업계에서도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따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고 생산, 소비, 폐기 시스템으로 인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패션 산업은 이러한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고 인간과 환경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패션 브랜드들이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이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실천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중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린 세르 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린 세르는 '에코퓨처리스트(Ecofuturist)'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제품 라인의 50% 이상 적용하며 매 시즌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 포괄적으로 패션 산업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과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론적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패션디자인을 정의한다. 둘째,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추구하는 대표 브랜드인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유형을 분류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실천을 위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선행 연구 논문, 전문서적, 패션 관련 기사, 인터넷 검색을 통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과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가치에 따른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현대 패션 브랜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가치를 따르는 방법으로 컬렉션에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 마린 세르를 선정하였다. 마린 세르에 나타나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유형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마린 세르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며 파리 컬렉션에서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 2018 F/W 시즌 컬렉션에서부터 연구 시점인 2022 F/W 시즌 컬렉션까지 마린 세르의 9개 컬렉션에 나타난 총 411장의 작품 이미지를 조사하고, 패션 전문가 집단 3인의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유형화 적정 사례인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가치를 논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한 패션의 이해

〈표 1〉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유형

유형	사례
환경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자연친화적 소재 사용 자원보호, 환경오염 방지 전 과정 관리 업사이클링 패션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멀티 핑션 패션 제로 웨이스트 패션 경영 및 기술의 혁신
사회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사회적 윤리 실천 지역사회 경제 기여 공정거래, 공정무역 비건 패션
문화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다양한 문화의 인정 정신적 가치의 존중 전통과 장인 정신의 계승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은 21세기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현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로서 인식되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까지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존하는 자원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패션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관심은 그린패션(Green Fashion), 에코패션(Eco Fashion), 친환경패션 등과 함께 예전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패션디자인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적용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었다(신혜선, 2014).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주로 친환경 패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용어의 범위 역시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대나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석효정, 2013). 그러나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은 보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영역, 인권 문제, 사용자의 가치관 등을 포함한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남후남,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패션의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니즈를 충족

시키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동시에 현대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패션디자인은 패션 산업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김수현(2007), 남후남(2010), 신혜영(2011), 국혜승(2014), 김현주와 나현신(2015), 이선아(2020), 김솔림(2020)은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은 패션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단계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이 융합적으로 고려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분류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네 가지 범주에 따른 분류를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환경, 경제, 사회, 문화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환경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문화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유형을 분류 하였다.

먼저, 환경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유형은 생산 및 제작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친환경 소재 사용, 청정 생산,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 보호,

생산에서 폐기까지 산업 전반의 과정 관리,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환경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에 속한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유형은 패션디자인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례로 멀티 평선 패션이나 제로 웨이스트 패션과 경영 및 기술 혁신, 기업의 투명성, 지역사회 경제 기여 등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유형은 사회적 윤리와 가치를 고려하여 패션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패션에서 인권보호, 공정무역, 사회공헌, 사회적 윤리 실천, 기부 활동, 슬로건 패션, 비건 패션 등의 사례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가치를 지키는 정의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이 수행된다.

문화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유형은 패션 산업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획일화된 문화를 지양하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가치 존중, 다양한 인종 존중, 상생과 화합, 전통과 장인 정신의 계승 등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을 의미한다.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들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은 이러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며 패션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해결책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갖고 있다.

2.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업사이클링은 버려지고 쓸모가 없어진 제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하여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품질이나 가치의 하락 없이 한층 더 개선된 품질을 가진 사용 가능한 형태로 되돌려지며,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반복 순환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오유진, 2015).

패션 산업에서는 빠른 유행주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량의 의복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 폐

기물을 만드는 'TAKE, MAKE, WASTE'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신혜영, 2011). 이로 인해 패션 산업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 대안으로 폐기물들을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단순히 폐의류를 재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의 전 과정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에도 다양한 과정을 거쳐 자원 순환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 이러한 과정에는 재료의 수거, 분류, 세탁과 손질, 분해와 해체, 재구성 및 재조합 등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폐기물인 재료가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재사용이나 리폼, 리디자인, 재생의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자원의 재활용의 과정을 넓게 수용하고 순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실현하면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를 확장시킬 수 있다.

〈표 2〉와 같이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은 환경성, 친환경성, 독창성, 희소성, 가변성, 전환성, 유희성, 변화성, 경제성, 지속성, 수공예성, 심미성, 예술성, 시간성, 역사성, 스토리성, 전통성, 가용성, 실용성 등으로 도출되었다. 연구자별로 특성에 따른 정의를 다르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종합하여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대표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환경성(친환경성), 독창성(희소성), 가변성(전환성, 유희성, 변화성), 경제성(지속성), 수공예성(심미성, 예술성), 시간성(역사성, 스토리성, 전통성), 가용성(실용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으로 중복되어 나타난 환경성, 독창성, 가변성, 경제성, 수공예성, 시간성, 가용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연구자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안연숙(2011)	친환경성, 희소성, 변화성, 실용성
권정숙(2012)	환경 친화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희소성
박지연(2013)	경제성, 환경성, 희소성, 전통성, 독창성
박주희, 김윤희(2014)	진정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실험성, 가변성
나현신, 김숙현(2014)	독창적 사고, 수공예적 기술, 기능적 업그레이드, 지역거점 생산
임은영(2014)	예술성, 희소성, 오리지널 오브제, 역사성, 형태전환, 기능전환, 의미전환, 장르전환, 지속가능성, 가용성
이루미(2015)	희소성, 시간성, 윤리성
오유진(2015)	희소성, 스토리성, 유희성
박종환(2016)	환경성, 희소성, 경제성, 심미성, 역사성, 가용성
박해인(2017)	친환경성, 독창적 가치성, 지속연장성, 역사성
박효주, 김정희(2018)	희소성, 지속가능성, 예술성, 스토리텔링성
신초현(2018)	재사용성, 재구성성, 재가공성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 ‘환경성’의 특성은 업사이클링 패션 자체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디자인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화학 물질이나 독성 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독창성’은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위한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 선보이는 창작 디자인과 제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지닌 제품을 창작하는데,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한 고유하고 희소성을 갖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

‘가변성’은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 형태, 기능, 의미, 장르 전환의 특성을 가지며(오유진, 2015), 기존의 재료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킨다. 재활용 재료를 분해하고 재조합하여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독특하고 실험적인 유희적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폐기되어 재활용되는 재료들은 이전에 사용되던 기록이나 역사적 흔적을 가지는데 이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시간성’의 특성으로 낡고 오래된 느낌을 삭제하지 않고 노출시키는 특성이다. 이러한 빈티지 물품들을 재활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개인의 기록과 문화적 회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폐기될 위기의 재고품을 활용하여 자원 절약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에 디자이너의 감성과 가치가 담긴 예술적인 ‘수공예성’이 더해진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디자이너의 영감과 손길이 더해져 예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수공예 기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심미적인 스타일과 기능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용적 가치와 안전성을 고려한 ‘가용성’의 특성을 가진다.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내며, 자원의 사용을 느리게 하고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

Ⅲ.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마린 세르(Marine Serre)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1.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마린 세르는 자신의 브랜드의 핵심을 ‘에코퓨처

〈표 3〉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사례

시즌	2018 F/W	2019 S/S	2019 F/W
사례			
	〈그림 1〉 2018 F/W MARINE SERRE	〈그림 2〉 2019 S/S MARINE SERRE	〈그림 3〉 2019 F/W MARINE SERRE
디자인 분석	- 빈티지 페스카프 활용 -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구성	- 오래된 열쇠고리로 장식 - 빛바랜 담요 재활용	- 다양한 소재의 믹스매치 - 열쇠, 동전, 부적, 메탈 빈티지 펜던트, 조개껍질, 진주 등 활용
시즌	2020 S/S	2020 F/W	2021 S/S
사례			
	〈그림 4〉 2020 S/S MARINE SERRE	〈그림 5〉 2020 F/W MARINE SERRE	〈그림 6〉 2021 S/S MARINE SERRE
디자인 분석	- 버려진 수건, 바다에서 회수한 플라스틱 재활용 - 테이블보, 가죽시트, 재생가능 플라스틱 우비, 재생 메탈 등을 사용	- 빈티지 스웨터, 페카펫, 폐침구, 테이블보 활용	- 테이블보, 스카프, 타월, 카펫 등 홈 데코 용품 활용
시즌	2021 F/W	2022 S/S	2022 F/W
사례			
	〈그림 7〉 2021 F/W MARINE SERRE	〈그림 8〉 2022 S/S MARINE SERRE	〈그림 9〉 2022 F/W MARINE SERRE
디자인 분석	- 재활용 섬유로 직조한 데님, 니트 등의 원단 사용 - 데드 스톡 가죽 조각을 활용한 패치워크 디자인	- 컬렉션의 90%에 재생 소재와 버려진 옷을 재료로 활용	- 패치워크, 콜라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업사이클링

(그림 출처: <https://www.vogue.com>)

리스트(Ecofuturist)'로 정의했으며, 첫 컬렉션에서부터 컬렉션의 상당한 부분을 버려진 재고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여 개성 있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마린 세르는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시대적 트렌드를 브랜드의 작품을 통해 명료하게 잘 반영하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따르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현대 패션 브랜드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질서이자 프로세스로 간주하면서 컬렉션마다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마린 세르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실천에서 다소 미진했던 컬렉션을 전개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 시즌 새로운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린 세르의 시즌별 컬렉션을 <표 3>과 같이 살펴보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F/W 시즌 컬렉션은 'Manic Soul Machin'을 주제로 현대화로 인해 인간이 기계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동시에 퓨처 웨어(Future Wear) 개념을 제시하고 미래적인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여 업사이클링된 아이템들을 마린 세르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마린 세르는 대량의 빈티지 스카프를 활용하여 재킷, 스커트 등의 아이템으로 재구성하였고, 폐기된 체조 공을 핸드백으로 변형하였다. 버려진 니트와 원단, 신발 등과 함께 수공예적인 아이템을 업사이클링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업사이클링된 제품도 고급스러운 동시에 예술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빈티지 스카프, 빈티지 의류, PVC를 활용하여 비대칭의 디자인과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의상은 스포츠 웨어 감각과 믹스되어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2019년 S/S 시즌 컬렉션은 'Hardcore Couture'를 주제로 전개되었다. 컬렉션은 마린 세르가 거주하는 근처 공원에서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모델과 일반인 모델들로 함께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컬렉션 작품의 50% 정도가 빈티지 스카프, 티셔츠, 빈티지 낚시 조끼, 잠수복, 체크 숄, 침대시트, 담요 등을 수거하여 해체와 재조합의 공정을 거쳐 업사이클링한 작품들이었다. 실크, 데님, 네오프렌, PVC, 플리스 등의 다양한 소재를 함께 사용

하여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피날레를 장식했던 화이트 드레스는 업사이클링된 프린트 티셔츠를 분해해 만들어진 작품이었으며, <그림 2>의 오래된 열쇠고리로 장식한 드레스는 추억의 감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재활용된 빛바랜 담요들을 활용하여 마린 세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빈티지 스카프와 스포티즘에 이어 브랜드의 감성과 융합된 창의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2019년 F/W 시즌 컬렉션은 'Radiation'을 주제로 대재앙이 닥친 세계 종말 이후를 연출했다. <그림 3>과 같이 연기와 함께 방독면을 착용한 모델들을 등장시키면서 미세먼지와 기후 온난화 등의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오염 문제를 반영시켰으며, 초승달 무늬 마스크와 전신을 감싸는 바디수트는 오염된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였다. 체크 무늬 숄, 빈티지 데님, 낡은 스웨터, 이불, 침대 커버의 소재를 부분 활용하고, 인조 모피와 패딩 등의 다양한 소재를 함께 믹스매치하였으며 열쇠, 동전, 부적, 메탈 빈티지 펜던트, 조개껍질, 진주 등으로 장식하였다.

<그림 4>의 2020년 S/S 시즌 컬렉션의 주제는 'Black Tide - Marée Noire'로 기름 유출을 주제로 기후 전쟁, 한여름의 혹서, 대량멸종으로 야기된 종말론을 테마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소재를 이용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또한, 마린 세르는 아랍 복식과 에스닉 패턴을 활용함을 통해 환경적 메시지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 또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버려진 수건과 바다에서 회수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작품을 통해 환경문제를 드러냈으며, 이 밖에도 테이블보, 가죽시트, 재생가능 플라스틱 우비, 재생 메탈 등이 업사이클링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크로세 소품은 스웨터로 다시 제작되었고 빈티지 커튼과 나이트가운, 레이스, 니트 숄 등은 원피스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업사이클링되었다.

2020년 F/W 시즌 컬렉션은 'Mind Melange Motor'를 주제로 전 세계의 문화를 바탕으로 사용 재료의 영역을 넓히고 패턴과 공예 등과 함께 아이템의 종류를 더욱 확장시켰다. 마린 세르는 코로나 이전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마스크 착용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현재 이러한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림 5>와 같이 빈티지 스웨터, 폐카펫, 폐침구, 테이블보를 활용하여 여러 아이

템을 디자인 하였고 초승달에 이어 도마뱀 패턴이 함께 제안 되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들을 무대에 세워 연출하였다.

〈그림 6〉의 2021년 S/S 시즌 컬렉션의 주제는 운명에 대한 사랑인 ‘Amor Fati’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단편 영화로 진행되었다. 마린 세르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테이블보, 타월, 카펫 등 홈 데코 용품들이 업사이클링 생산량에서 최소 50%를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카펫으로 만든 각종 재킷과 드레스, 쿠션 커버로 만든 가운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재활용된 아세테이트 무아레 원단과 생분해성 나일론을 활용하였다. 사이클 경기복에서 착안한 바디 수트와 함께 기능성을 강조한 멀티 포켓이 달린 유틸리티 점퍼 등 다양한 기능성 의류도 함께 제안하였고 발라클라바 마스크를 붙인 라이크라 드레스와 함께 빈티지 주얼리 등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된 아이템들도 나타났다.

2021년 F/W 시즌 컬렉션은 ‘Core’를 주제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컬렉션 영상에서는 〈그림 7〉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델로 등장하여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재활용 섬유로 직조한 데님, 니트 등의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마린 세르의 이전 작품들을 업사이클링한 디자인들을 선보였다. 마린 세르의 시그니처인 다양한 빈티지 스카프가 변형되어 티셔츠, 데님 팬츠, 바이커 팬츠, 재킷 등의 다양한 제품군과 침대 커버, 카펫 등의 재료와 함께 다양한 스타일로 어우러졌다. 패치워크 가죽 코트 등 지속 가능한 순환의 관점에서 데드 스톡 가죽 조각을 이어 붙인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린 세르의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컬렉션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과 함께 어떠한 방식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제작되고 어떤 방법으로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의 2022년 S/S 시즌 컬렉션의 주제는 ‘Fichu pour Fichu’로 영화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아주 작은 행동도 자신과 타인, 지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번 컬렉션에서 마린 세르는 컬렉션 룩의 90%를 재생 소재를 사용하거나 버려진 옷을 업사이클링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다. 마린 세르가 지금까지 시도한 컬렉션 중 가장 많은 양의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졌으며 재료의 45%가 재생되었고, 나머지 45%는 재활용되어 사용되었다. 목욕 타월과 리넨 타월은 코트, 셔츠, 스커트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업사이클링 되었으며 빈티지 데님과 티셔츠는 해체된 후 화려한 조끼, 콜라주된 드레스, 하이웨이트 데님 팬츠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수거된 수저 등의 커트러리들을 자르고 뒤틀어 컵스와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 업사이클링 되도록 하였다.

2022년 F/W 시즌 컬렉션의 주제는 ‘Hard Drive’로 60-70년대의 펑크와 90년대의 해체주의가 함께 나타났으며 인종, 성별, 연령, 체형, 스타일이 각기 다른 모델들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는 〈그림 9〉와 같이 더욱 다양한 패턴들이 사용되었는데 마린 세르의 시그니처 패턴에서부터 블랙 앤 화이트의 마름모 패턴, 타탄체크, 투알 드 주이(Toile de Jouy), 카모플라주 패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타탄체크 무늬의 스카프는 트위드와 함께 패치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었으며 니트 소재들 또한 콜라주 기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들로 업사이클링되었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마린 세르는 이번 컬렉션 또한 지난 시즌의 옷을 살펴보는 것에서 컬렉션 구상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는 마린 세르는 작업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책임감과 의무라고 주장하며 업사이클링 과정을 볼 수 있는 작업실을 재현하였다. 현 옷을 모아서 해체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마린 세르 컬렉션이 완성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하였다.

2.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특성

마린 세르의 2018 F/W 시즌 컬렉션에서부터 최근 발표된 2022 F/W 시즌 컬렉션까지 시즌별로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환경성,

독창성, 가변성, 경제성, 수공예성, 시간성, 가용성으로 분류하여 (표 4)와 같이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1) 환경성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기능성과 심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보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 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을 기획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린 세르의 2019년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컬렉션 작품의 50% 이상이 중고 의류와 빈티지 스카프 등을 재활용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중고 의류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림 11)의 2020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마스크와 전신을 감싸는 바디 수트 디자인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시각적으로 반영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10)의 2020년 S/S 시즌 컬렉션에는 바다에서 회수한 플라스틱과 버려진 수건 등을 재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생분해성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재 활용과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마린 세르의 패션디자인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환경보호 가치관을 논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2) 독창성

마린 세르의 컬렉션에서 업사이클링되는 재료들은 모두 새롭게 재창조되어 단 하나뿐인 독창

적인 디자인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고유한 모습을 표출하고 남들과는 다른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더불어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저마다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재료들은 의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사용된 재료들과 만들어진 결과물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성이 나타나며 고정 관념을 탈피함으로써 의외성을 띄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타난다.

(그림 12)의 2019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발라클라바 마스크와 함께 열쇠, 동전, 부직, 조개껍질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드레스의 각기 다른 위치에 무작위로 부착하여 장식함으로써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타났으며 하나 이상의 제품이 나올 수 없는 희소성이 함께 나타났다. (그림 13)의 2020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이질적인 재료들을 믹스매치 하여 다양한 소재와 문양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디자인을 볼 수 있었다.

3) 가변성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과정에서는 패션과 관계 없는 기능과 용도로 쓰이던 제품들이 업사이클링되어 패션디자인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원래의 재료와는 달리 변형된 형태와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된다. 마린 세르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사용 용도와 기능을 다하고 버려진 폐기물의 용도를 전환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다른 쓸모를 가진 제품으로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4)의 2018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폐기된 체조 공을 형태를 유지한 채 용도를 변경하여 핸드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고, (그림 15)의 2019년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낚시 조끼의 주머니를 활용하여 드레스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또한, 2019년 F/W 시즌에서는 열쇠고리와 빈티지 주얼리, 조개껍데기와 동전 등을 재사용하여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료들이 주얼리나 장식품으로만 활용되어온 것과는 달리 마린 세르는 이를 의류

전체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같은 효과와 함께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4) 경제성

마린 세르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필요를 감소시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재와 재고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재료의 폐기 과정과 새로운 재료를 생산해내는 데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마린 세르는 매 시즌 다양한 종류의 버려진 재료들과 중고 제품들이 업사이클링 되도록 디자인함으로써 새로운 원단의 생산과 제품의 폐기에 낭비되는 경제적인 비용까지 고려해오고 있다.

〈그림 17〉의 2018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부터 폐기된 빈티지 스카프를 소재로 활용한 디자인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으며, 빈티지 스카프의 다양한 조합과 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독특한 디자인을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림 16〉의 2019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폐기된 이불과 침대 커버 등의 재료에서 해체한 부속품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하였다. 또한, 2021년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폐카펫을 활용한 디자인을 다양하게 선보였으며 원단의 형태와 가까운 폐카펫의 특성상 해체와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도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다.

5) 수공예성

마린 세르는 디자이너의 영감과 손길이 더해진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이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료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섬세한 감각으로 고부가가치를 가진 예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며, 재료를 해체하고 재조합하는 공정을 거쳐 기존 재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예술성을 가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 시킨다. 마린 세르는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인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료를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패션의 형태를 자유롭게 나타낸다.

〈그림 18〉의 2019 S/S 시즌의 컬렉션에서는 실크, 데님, 네오프렌, PVC, 플리스 등의 다양한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나타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통해 예술 작품과 같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림 19〉의 2020 F/W 시즌에는 전 세계의 문화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영역을 넓히고 패턴과 공예 등과 함께하는 아이템의 종류를 더욱 확장시켰다.

6) 시간성

마린 세르는 오래된 출처와 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재료를 본래의 흔적을 유지한 채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탄생시킨다. 이때 사용되는 재료들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시간의 흔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지나온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질 당시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적 양상 또한 반영하고 있다. 마린 세르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 버려지는 재료와 중고 제품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거의 시간을 공유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의 옷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0〉의 2019 S/S 시즌에서는 사용하던 담요의 빗바랜 흔적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새로운 디자인임에도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2019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오래된 열쇠고리들로 장식된 점퍼로 이것을 사용하던 사람들의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였다. 또한, 〈그림 21〉의 2020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70년대에 사용되던 빈티지 테이블보를 활용하여 판초와 티셔츠를 디자인하여 사용된 재료를 통해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룩을 표현하였다.

7) 가용성

마린 세르는 한번 쓰고 다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착용하고 사용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제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진 재

〈표 4〉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및 가치

특성	사례	디자인 특성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가치
환경성	 <p>〈그림 10〉 2020 S/S MARINE SERRE</p>	 <p>〈그림 11〉 2020 F/W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자원 절약 - 폐기물을 줄여 환경에 끼치는 영향 최소화 - 환경오염 문제를 직시하도록 유도 - 제품의 기능적, 심미적 부분과 함께 환경에 미칠 영향력 고려
독창성	 <p>〈그림 12〉 2019 F/W MARINE SERRE</p>	 <p>〈그림 13〉 2020 F/W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티지 스카프를 재조합하여 다양한 디자인 활용 - 열쇠, 동전, 부직, 조개껍질 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 - 이질적인 재료들의 믹스매치 - 다양한 소재와 문양이 혼합된 독특한 디자인 -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한정된 재료의 희소성 - 다양한 소재와 재료의 조합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의외성
가변성	 <p>〈그림 14〉 2018 F/W MARINE SERRE</p>	 <p>〈그림 15〉 2019 S/S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된 체조 공을 용도를 변경하여 핸드백으로 활용 - 낚시 조끼 주머니를 조합한 드레스 디자인 - 열쇠고리와 빈티지 주얼리, 조개껍데기와 동전 등을 활용 - 재활용 제품의 용도 변화 - 사용 용도와 기능을 전환하여 재사용 - 기존과 전혀 다른 곳에 재료를 활용
경제성	 <p>〈그림 16〉 2019 F/W MARINE SERRE</p>	 <p>〈그림 17〉 2018 F/W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티지 스카프를 소재로 활용한 디자인 - 폐기된 이불, 침대 커버 등 수거된 재료에서 해체한 부속품 활용 - 폐카펫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 제품이 최대한 길게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임 - 생산과 폐기 과정의 비용을 절약

특성	사례	디자인 특성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가치	
수공예성	 <p>〈그림 18〉 2019 S/S MARINE SERRE</p>	 <p>〈그림 19〉 2020 F/W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크, 데님, 네오프렌, PVC, 플리스 등 다양한 소재 함께 사용 - 전 세계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재료의 영역 확대 - 패턴과 공예를 활용하여 아이템의 종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만의 가치와 감성 표현 -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꾸뛰르적인 감성 강조 - 고부가가치의 예술적인 제품
시간성	 <p>〈그림 20〉 2019 S/S MARINE SERRE</p>	 <p>〈그림 21〉 2020 S/S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던 담요의 흔적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 -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 오래된 열쇠고리들로 장식된 점퍼로 추억과 감성 자극 - 빈티지 재료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새로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새로운 가치 창출 - 시간의 흔적과 과거부터 쌓아온 스토리 유지 - 과거의 시간을 공유한 현대적인 디자인 -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
가용성	 <p>〈그림 22〉 2018 F/W MARINE SERRE</p>	 <p>〈그림 23〉 2021 S/S MARINE SER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 물병, 지갑, 립스틱 등을 보관하는 멀티 포켓을 장착 -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디자인 - 기능성을 강조한 실용적인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착용 가능 - 기능성과 실용성 - 이용자가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 가능 - 적절한 재료들이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적용

(그림 출처: <https://www.vogue.com>)

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에 적용하였으며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였다.

〈그림 22〉의 2018 F/W 시즌 컬렉션에 나타난 핸드폰, 지갑, 물병, 립스틱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멀티 포켓을 장착한 라이딩 재킷은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3〉의 2021 S/S 시즌 컬렉션에서는 기능성을 강조한 멀티포켓이 달린 유틸리티 점퍼와 사이클 경기복에서 착안한 바디 수트를 선보임으로써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마린 세르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의 가치관과 관점, 작품 표현 방법 등과 함께 컬렉션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한 결과,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핵심 가치인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인 가치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사용되는 재료의 활용을 통해 '환경적 가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업사이클링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모두 이미 폐기 처분되었거나 쓸모를 다해 폐기 처분될 재료와 함께 친환경적으로 채취한 재료들이다. 마린 세르는 이처럼 환경오염의 원인인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한정적인 자원 내에서 새로운 자원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료의 활용은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모든 특성에 전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환경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사용 후 버려진 재료를 이용하여 원자재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임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독창성과 희소성은 남과 다를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한정판의 개념으로 다가가 제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가변성을 통해서도 제품이 갖고 있던 형태와 특성을 변형시켜 완전히 다른 기능과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업사이클링 과정에서 마린 세르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해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수공예성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사이클링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다시 버려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순환 주기를 늘려줄 수 있는

가용성 또한 포함되며, 버려진 재료들을 사용하였지만 현재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함으로써 재료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능적으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재료와 함께 재활용, 재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치도록 사회적 책임을 통한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획일화된 패션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해결하고 다양성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났다. 마린 세르는 여러 지역의 문화가 섞인 재료들을 이용하여 독창적인 패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되는 문화를 배려하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업사이클링의 재료에 묻어나는 흔적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제품이 지나온 역사를 존중하는 시간성의 특성을 통해서도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된 제품과 함께 컬렉션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현대 사회의 단편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틀을 파괴하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인 다양성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났다. 마린 세르는 전 세계의 문화를 바탕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영역을 넓히고 패턴과 공예 등과 함께하는 아이템의 종류를 더욱 확장시킴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 여러 문화가 섞인 다양한 지역적, 전통적 특색에서 영감을 받아 전개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창성이 나타난 업사이클링 디자인들은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만의 제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맞춤형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 맞춤형 디자인과 함께 가용성을 통한 실용적인 측면

을 부각시켜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다음 세대에까지 보존된 자연과 문화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에서는 제품이 흘러온 시간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제품이 지나온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전통, 역사와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부터 쌓아온 것들을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따르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린 세르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았고, 시즌별 컬렉션 주제와 함께 작품에 사용된 소재, 재료, 이미지 느낌, 작품 형태, 제작 기법, 아이템 구성과 같은 디자인적인 측면을 함께 고찰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브랜드가 추구하는 패션에 대한 디자이너의 관점과 가치관, 추구하는 패션 세계, 표현 방법 등과 함께 컬렉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마린 세르에서 나타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패션디자인은 환경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 문화적 가치를 지닌 패션디자인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둘째, 마린 세르에 나타나고 있는 지속가능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환경성, 독창성, 가변성, 경제성, 수공예성, 시간성, 가용성으로 특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가치별로 내제된 특성을 보았을 때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가치 중 한 가지 측면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모두 고루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

링 패션디자인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를 모두 내포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여러 패션 브랜드에서 시도하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과의 차별성이 강조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고루 내포한 마린 세르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은 패션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향후 패션 산업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국혜승. (2014). *지속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정숙. (2012). 지속가능성의 관점에 기초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1), 3-23.
- 김솔림. (2020). *조각보 기법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 연구:환경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연구:영국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나현신. (2015).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의 사례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3), 53-68.
- 나현신, 김숙현. (2014). 크리스토퍼 래번 작품에 나타난 업사이클 디자인의 특성 사례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1(0), 383-397.
- 남후남. (2010). 서스테이너블 패션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53-68.
- 박종한. (2016). *폐 가죽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김윤희. (2014).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 연구. *복식*, 64(8), 138-154.
- 박효주, 김경희. (2018).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에 따른 패션디자인 연구. *패션과 니트*, 16(1),

- 44-55.
- 박지연. (2013). *업사이클링 리디자인 의상 개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인. (2017). *업사이클 브랜드 패션가방제품의 표현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효정. (2013).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비자 평가와 태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초현. (201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에 따른 사례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선. (2014). *지속가능성 유형의 패션트렌드 분석과 패션디자인 기획*.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영. (2011). *패션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나타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연숙. (2011). *재활용 패션디자인에 의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진. (2015).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의 방법 및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루미. (2015). *업사이클 제품 및 패션디자인의 제작방법 별 특성과 가치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영. (2014). *업사이클링 디자인 특성에 따른 작품사례 분석*. 기초조형학연구, 15(2), 483-493.
- Marine Serre fall 2018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01.,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25>
- Marine Serre fall 2018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26>
- Marine Serre fall 2018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10>
- Marine Serre fall 2018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1.05,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45>
- Marine Serre fall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9).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7>
- Marine Serre fall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9). Vogue. 자료검색일 2021.01.05,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7>
- Marine Serre fall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2>
- Marine Serre fall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6>
- Marine Serre fall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1>
- Marine Serre fall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1.16,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1>
- Marine Serre fall 2021 ready-to-wear collection. (2021). Vogue. 자료검색일 2022.04.3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1>
- Marine Serre fall 2022 ready-to-wear collection. (2022). Vogue. 자료검색일 2022.04.3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1>
-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9).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1>

-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29>
-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1.05,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
-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41>
-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43>
- Marine Serre spring 2019 ready-to-wear collection. (2018).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26>
- Marine Serre spring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19). Vogue. 자료검색일 2021.01.16,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marine-serre>
- Marine Serre spring 2020 ready-to-wear collection. (2019). Vogue. 자료검색일 2021.04.18,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4>
- Marine Serre spring 2021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2.27,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marine-serre>
- Marine Serre spring 2021 ready-to-wear collection. (2020). Vogue. 자료검색일 2021.04.23,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marine-serre/slideshow/collection#39>
- Marine Serre spring 2022 ready-to-wear collection. (2021). Vogue. 자료검색일 2021.04.3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2-ready-to-wear/marine-serre>